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1호(1-2009-04-29)



(121-2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 KBS미디어센터 15층 해양물류연구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02-2105-4964, 2982, 2929

FAX : 02-2105-2779

편집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09.4 현재 122개 업체)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편집 ·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 배포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목 차 >

-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소개 및 국제물류위클리 발간경위-----2
- 스리랑카 Colombo 남측 컨테이너부두 12억불 국제입찰 진행상황-----2
- 미국 Maryland 항만청(MPA), Baltimore항 Seagirt Marine Terminal 4번 선석의 30년 운영권 민간매각 추진 -----3
- 브라질 Santos항 増深공사, 중국 상해준설(주)(SDC) 컨소시움에 낙찰-----4
- 포르투갈 Tertir사, 페루 Paita항 운영권 획득 -----5
- ※ 공지 :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인도 및 중남미 시장 진출 워크숍 -----6
(관심있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소개 및 발간경위

- 정부는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해양수산부 외곽조직으로 2007.3 글로벌물류사업단을 창설하여 지원활동을 개시
 - 2007.3 국내 물류관련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를 결성
- 2007.3~2008.12 기간 중 글로벌물류사업단은 국제물류투자협의체에 국제물류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활동 수행
- 2008.7 국토해양부,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내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를 설치
- 2008.12 국토해양부, 글로벌물류사업단의 기능을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이관하고 글로벌물류사업단을 폐지
- 2009.3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전담직원 3명 채용 등 본격 활동 개시
- 2009.4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센터의 주요기능인 국제물류동향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KMI 국제물류위클리 창간호 발간(*유재만 연구위원 yoojmn@kmi.re.kr*)

□ 스리랑카 Colombo 남측 컨테이너부두 12억불 국제입찰 진행상황

- 전체 3단계의 총공사비는 12억불(약 1조 6,200억원)로 추정
 - 이번 입찰은 1단계 입찰, Colombo항의 연간 처리능력은 250만 TEU
 - 1단계 연간 250만 TEU, 2012년 중반 개장 예정
 - BOT(built-operate-transfer) 조건, 30년 Concession
- 당초 스리랑카 항만청(SLPA)은 Aitken's 컨소시움(싱가폴 PSA 참여)을 낙찰자로 발표하였으나, 경쟁업체였던 홍콩 Hutchison Port Holdings사의 소송 제기에 따라 2008.11 낙찰 취소되어 2009.4 현재 입찰절차 재 진행 중인 상황
- 현재 SLPA는 1단계 부두 운영에 필요한 방파제 건설 공사를 이미 발주
 - 우리나라의 현대건설이 시공 공사 중
 - 공사비 3억 4천만불(약 4,600억원)은 ADB의 3억불 융자와 SLPA의 자체자금 4천만불로 조달

< Colombo 남항방파제 공사 현장 >



- 2009.4 현재 국제입찰 견적요청서(RFQ : Request for Qualifications) 수령기업 명단

1) Hutchison Port Holdings	8) Aitken Spence Shipping Ltd
2) Hayleys PLC	9) South Asia Gateway Terminals Ltd
3) Standard Chartered Bank	10) APL Lanka (Pvt) Ltd
4) Maersk Lanka (Pvt) Ltd (APM Terminals)	11) China Harbour Engineering Ltd
5) Hemas	12) China Merchant Shipping
6) Gulfstream Co Ltd	13) 중국 terminal operator
7) John Keells Holdings PLC	14) 파키스탄 기업 (명단 미공개)

- 향후일정

- 스리랑카 정부는 2009.5.19 제안요청서(RFP: Requests for Proposals) 접수를 개시
- 국가입찰심사위원회에서 2009.11 최종 낙찰자 발표 예정

(자료 : Lanka Business 2009.4.16, 유재만 연구위원 yoojmn@kmi.re.kr)

□ 미국 Maryland 항만청(MPA), Baltimore항 Seagirt Marine Terminal 4번 선석의 30년 운영권 민간매각 추진

- 사업의 내용

- 2014년 파나마 운하의 확장공사 완료에 대비, 민간 운영사를 유치하여 수심 15m의 4번 컨테이너 선석을 추가 건설
- 추정 사업비 : 8,000만불(약 1,080억원)
- 현재 입찰절차 검토중인 상황

- Seagirt Terminal은 1990년부터 Ports America Baltimore Inc.가 20년 계약 조건으로 수심 13.5m의 컨테이너 선석 3개를 현재 운영중

- 총 사용료로 4,160만불(약 560억원)을 MPA에 납부
- Seagirt Terminal은 2007년 연간 처리능력의 50%에도 못 미치는 48만 TEU를 처리

- MPA는 2010년 1/4 분기중 기존 Seagirt Terminal의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실시 예정(자료 : Maryland Daily Record, 2009.4.15, 유재만 연구위원 yoojmn@kmi.re.kr)

□ 브라질 Santos항 増深공사, 중국 상해준설(SDC) 컨소시엄에 낙찰

- 사업의 내용
 - Santos항의 수심 13m를 15m로 増深, 총사업비 9,100만불(약 1,225억원)
- 브라질 정부는 경기부양책(PAC : Programme to Accelerate the Economy)으로 총 2,400억불(약 324조원)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수립
 - 이 중 국제 무역항만의 수심을 증심하는 준설사업비에 6억 3,500만불(약 8,500억원)을 배정
- 이번 Santos항 증심공사는 PAC 사업중 3번째 발주 사업에 해당
- 중국 상해준설(주)(SDC : Shanghai Dredging Company) 컨소시엄의 구성사
 - EIT, Equipav, DTA Engenharia, 중국 SDC사
- 브라질 항만당국은 Santos항 증심공사 완공시 현재 최대 5,000 TEU급 컨테이너선만 접안 가능하던 것이 향후 최대 9,000TEU 급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현재 Santos항을 이용 중인 일본의 NYK Line, K Line, Mitsui OSK Line, 대만 Evergreen사 및 중국 China Shipping의 극동/브라질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수송이 보다 활성화 될 전망
- ※ SDC사의 브라질 항만준설 공사 추가 참여 가능성
 - Rio de Janeiro항 증심공사와 브라질 정부의 항만준설 사업(약 8,500억원 규모) 발주 예정분 중 2~3개 사업에 추가 참여할 것으로 관측

(자료 : Seatrade Asia 2009.4.17, 유재만 연구위원 yoojm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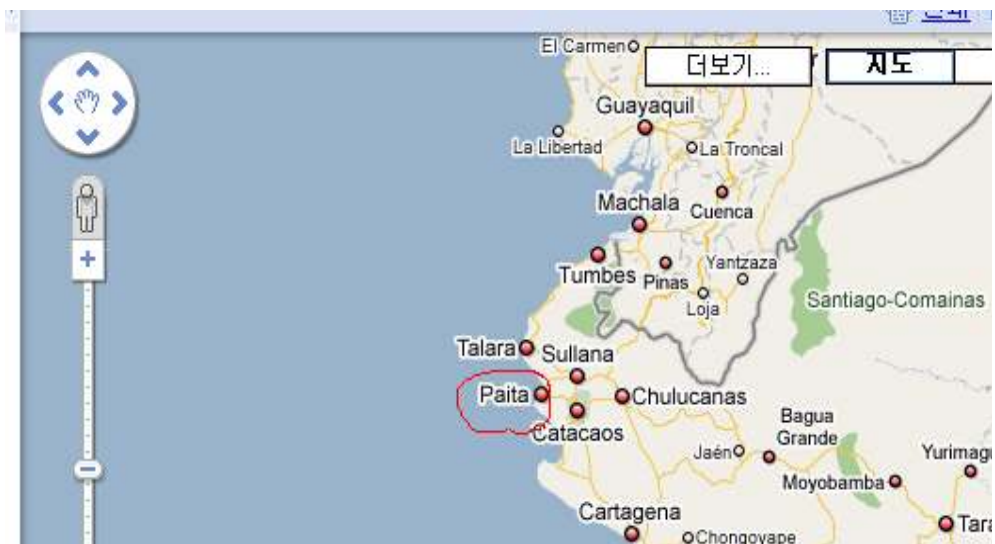
< 브라질 Santos항 전경 >



□ 포르투갈 Tertir사, 페루 Paith항 운영권 획득

- 사업의 내용
 - 컨테이너 및 다목적 터미널 야드 12ha(약 36,000평) 건설, 현재의 13m 수심을 증심(増深), Post-Panamax 선박의 하역이 가능한 ship-to-shore 갠트리 크레인 1기와 2기의 Rubber-tyred 갠트리 크레인 설치, 총사업비 1억불(약 1,300억원)
 - 현재 동 항만은 연간 11만 TEU 처리
 - 향후 컨테이너 물량이 18만 TEU에 달할 경우 운영권자는 컨테이너 하역 장비의 능력을 2배로 늘려야 하며, 30만 TEU에 달하면 컨테이너 선석을 추가 건설하는 조건으로 운영권 확보
 - 페루 항만의 민영화를 담당하는 페루 정부기관인 ProInversion은 향후 2개월 내에 Tertir사와 30년 운영권 부여계약을 체결할 예정
- ※ 포르투갈 Lisbon항의 Liscont Container Terminal 운영사인 Tertir사는 페루 현지의 Cosmos Agencias Maritimas and Translei사와 제휴하여 사업 추진 계획(자료 : Lloyd's List 2009.4.16, 유재만 연구위원 yoojmn@kmi.re.kr)

< Paith항 위치도 >



※ 공지 :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인도 및 중남미 시장 진출 워크숍(안)

- 개최일정 : 2009. 5. 13(수) 13:00 ~18:40
- 장 소 :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강남구 삼성동 COEX)
- 주 관 : 국토해양부
- 주 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
- 개최목적
 - 인도 및 중남미 물류투자 애로요인 발굴 및 개선 대책 수립
 - 인도 및 중남미 해운물류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
- 주요진행내용
 - 진행(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주제별 내용 발표 및 토의

<기조연설>

- 세계 해운 물류시장의 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국토해양부 신평식 물류항만실장)

<주제 1>

- 국제물류 투자분석센터 소개 및 운영계획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김수엽 센터장)
- 국제물류투자펀드 운영계획 (국민은행 전채욱 차장)

<주제 2>

- 중남미 해운물류시장 진출 현황 및 진출방안 (KMI 이성우 부연구위원)
- 중남미 해운물류시장 진출사례 (한진해운 백인도 부장)

<주제 3>

- 인도 해운물류시장 진출 현황 및 진출방안 (KMI 박용안 연구위원)
- 인도 해운물류시장 진출사례 (삼진해운 김원호 사장)

<주제 4>

-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시장 진출 사례 (한국광물자원공사 권순진 차장)